



만로랜드코리아 기자회견

만로랜드 AG, 법정보호관리 신청 글로벌 경제 위기. 수요 대폭 감소가 원인

만로랜드AG는 지난해 11월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관할 법원에 법정보호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저런 억측들이 떠돌자 만로랜드코리아는 구랍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만로랜드코리아의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산라인이 일부 축소되기는 하지만 효율성 제고로 일정 수준의 생산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만로랜드가 법정보호관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 만로랜드AG는 법정보호관리를 신청했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대표로 변호사인 Frank Kebekus 박사가 임명되었고, 임시보호관리자로 재무 회계 및 세무컨설턴트인 Wenner Schneider가 선정돼 현재 만로랜드의 포괄적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정보호관리 신청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판매 감소가 지난해 7월 이후 더욱 심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주물량이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비해 50%선에 그친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고객들이 여전히 만로랜드의 인쇄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지만 유럽의 금융 및 재정 위기로 인해 기계 투자를 위해 용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줄어든 주문량에 따라 수주경쟁이 격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부품 공급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만로랜드의 인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부품 공급 등 일련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만로랜드의 법정보호신청이 위기가 더욱 심해지기 전에 예비적인 조치로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만로랜드코리아나 일본, 중국 등의 만로랜드 현지법인들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 또는 중국을 주생산기지로 하는 인쇄기 생산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중국으로 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몇몇 인쇄기 생산업체들이 중국을 주생산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로랜드의 인쇄시스템들은 고도의 정밀성을 갖고 있는 첨단장비여서 현재 중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생산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중국에서 만로랜드의 인쇄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는 이미 생산비용이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다음이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로랜드의 법정보호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전망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권 및 주주들의 지원이 예상보다 좋다면, 1년 이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만에도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만로랜드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

지난 3년여 동안 5000여 명의 직원을 구조 조정했으며 추후 운전공장과 매엽공장을 하나로 합쳐 2500여명을 추가로 감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만로랜드의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흩어져 있던 생산라인을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생산능률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관리 조사에서도 구조조정 이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60일 이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대주주들도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로랜드의 구조조정은 그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만로랜드코리아는 재정상태도 건전하며, 부품 공급과 서비스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어서 고객들에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떤가요? 글로벌 차원이나 만로랜드코리아 차원에 대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로랜드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홍보 분야도 긴축경영에 따른 영향으로 드루파2012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로랜드코리아도 자체적인 홍보 담당이 없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홍보 활동이 일정 부분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

만로랜드, 자금지원 성사

만로랜드AG의 임시보호관리자 Werner Schneider는 용자동의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재정감사인 Werner Schneider는“생산과 사업상의 업무활동의 지속적 진행이 보장 되었으며, 이번 용자동의로 인해 만로랜드는 고객과 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시보호관리자인 Schneider는 “신속하게 용자협의를 달성 되어서 행운”이라며 “생산활동이 중지되면 회사의 손실이 커지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판매 진행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의 용자금액은 5500만 유로이며 그 가운데에 1천만 유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고 4500만 유로는 부분신용대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부금을 통해서 만로랜드는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이 없이 필요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